

외투기업 경영실적 호조

“2008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지식경제부가 4월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익성, 생산효율 및 노동생산성 등에서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영성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고용규모 등도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특히 국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 고용규모, 수출액 등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아울러, 2007년 외투기업은 국내 제조업 수출

의 15.6%를 차지하여 전년(11.7%)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국내 제조업 매출액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6%와 7.3%로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한편, 외투기업의 제조업 부문 R&D는 총 1.6조원으로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계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영성계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자산증가율과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생계액)은 국내기업의 2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 지표]

	2006년				2007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전체
매출 (조원)	124	41	1	166	124	53	4	181
고용 (만명)	17.1	8	0.2	25.3	17.6	8.6	0.5	26.7
수출 (억불)	337	-	-	-	543	-	-	-

[외투기업의 주요 경영성과 지표]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투기업/국내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6.0	5.5	1.09
부채비율(%)	107.7	106.5	1.01
총자산증가율(%)	14.6	11.8	1.24
유형자산증가율(%)	10.0	4.9	2.04
종업원1인당부가가치(백만원)	141.8	73.9	1.92

모기업의 투자동기로는 우리나라의 내수시장 진출(54.4%)과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17.9%)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아시아 여타지역 대비 국내법인의 경영성과가 더 좋거나 평균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9.1%로 나타나 한국 시장에 대한 추가투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외투기업은 한국 내수 판매(58.5%)비율이 해외 수출(41.6%)보다 높았으며,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32.5%), 일본(24.2%), 미국(22.7%) 등의 순이다.

기업의 생산요소 중 '사업장확보비용'의 악화

가 많이 지적되었고, 수요조건에서 'test시장'으로서의 적합성'에 고평가를 받아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분야의 투자유치가 유망할 것으로 보였다.

국내 사업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업체간 과다경쟁(30.7%), 적정 인력 수급의 어려움(26.3%), 높은 인건비(24.0%) 등이 지적되었으며,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규제완화(7.1%), 조세지원 확충/제도 간소화(6.8%)를 많이 응답하였고, 침체된 경기상황을 반영하듯 '경기 회복 및 시장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도 다수 있었다.

동 조사는 지식경제부가 무역투자연구원 및 한국갤럽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물로서 16,000여개 외투기업 중 외국인투자자 1인 지분을 10%이상, 투자액 50만불 이상 외투기업(금융업 제외) 2,301개 업체의 2007년 경제·경영 성과에 대한 것이다.(조사기간 '08.11~12월)

한편,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4월 9일(목) 17개 외투기업 R&D 센터장을 초청하여,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자산증가율과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은
국내기업의 2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에서 연구개발 추진의 어려움을 듣는 한편, 국내 R&D정책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우수한 인력을 비롯한 국내 R&D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자리에는 3M, GE Healthcare 등 글로벌 기업 이외에도 (주) 휴니드테크놀러지스 등 기술혁신형 기업 R&D센터가 참석했다.

지경부는 지난 '04년부터 우수 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Kimberly-Clark, Infineon, Toray 연구소 등 총 27개 기업의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였다. 총 27개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714명의 R&D 인력 일자리 창출과 4,629억원의 투자효과 기대되었다.

이 사업이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기업 및 R&D 센터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R&D 센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임채민 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고, 지경부 관계자들에게 글로벌 R&D 센터를 국내에 유치한 이후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작금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확대에 따른 기술혁신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였다.

초청 기관장들은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투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이 아쉬움을 지적하였으며, 지원 방법을 다변화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